

평화의 길목에서 되짚어 본 '분단 66년'

광주시립미술관 민중미술화가 송창 초대전

조국분단 현실 고민한 40년 족적 담아
미사일·포탄 보관함 등 설치작품도
인터뷰 영상·아카이브 자료도 감상

전시장에 걸린 대형 평면과 입체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디론가 향하는 철길 위에 쏟아져 내린 알록달록 꽃들은 서글프고 아련하다. 기적 소리를 내며 기차가 달려야 할 철길은 인적 하나 없이 고요하고 그 위로 흰눈이 내린다. 두터운 질감을 살린 화폭 속의 꽃들은 조화들이다. 대형 설치 작품인 포탄 위에 설치된 꽃들 역시 인상적이다.

화업 인생 40년간, 조국의 분단 현실을 담아온 민중미술화가 송창 작가 초대전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오는 6월3일까지 열린다.



‘의주로를 보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출신 중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중견작가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분단’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해온 장성 출신 송 화백을 초대, ‘66년-분단 서정’전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기획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변, 어느 때보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요즘의 상황에서 의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하다.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조선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송 작가가 광주를 떠난 건 지난 1979년 겨울이다.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작업중인 송 작가는 지

금까지 모두 16번의 개인전을 가졌지만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 광주에서의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의 혼란한 사회를 통과해 오면서 “작가는 시대적 정신을 갖고 동시대의 기록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당연시 했기에 그의 작품 주제는 분단, 사회 부조리와 국가의 공권력, 억압받는 민중의 삶, 민주화 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중에서도 6·25가 촉발한 분단 문제는 그에게 작가로서의 삶이란, 시대정신이란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작업 가능케 한 주제였다.

송 작가의 작품은 얼핏 투박하며, 거칠고, 직접적인 화법의 조형 언어로 이루

어져 있는듯 보인다. 한데, 슬픈 서정성과 아득한 느낌이 작품마다 배어있어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전시는 ‘분단’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경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5전시실에서는 주로 송 작가의 대형 평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스산한 DMZ 풍경 등 단순 평면 유희 작품 이외에도 소나무와 지푸라기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평면이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6전시실에는 송 작가의 평면 작품과 더불어 여러 형태의 입체 설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목도할 수 있는 폭격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 크기

에 비슷한 미사일 작품이 공중에 설치돼 있고 포탄 보관함에 포탄이 아닌 꽃이 담겨져 있기도 등분단 현실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작품활동에 대한 인터뷰 영상과 전시 도록 등 아카이브 자료도 함께 전시해 작가의 40년 족적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송 작가는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에 선보이는 전시작들은 분단에 물음을 던지는 작품들로 마침내는 평화로 종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나의 물음에 대한 대답들”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공연

놀이패 ‘신명’ 19일~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사진)를 선보인다. 19일~20일 오후 3시 ACC 예술극장 극장1.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는 201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이래 100여 회 이상 국내 투어 공연을 돌며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마당극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들을 찾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들에게는 아직 끝나

지 않은 항쟁의 아픔과 슬픔, 그에 대한 극복을 전통탈춤과 국의 연산 구조를 적극 차용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화했으며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긴밀한 구성이 극적 재미를 더한다.

놀이패 ‘신명’은 1982년 창단된 마당극 전문예술단체로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마당극 창작 및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자세한 사항은 ACC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자 eij6621@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당신의 의미’ 무대

6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남도소리울림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줄 전남도립국악단 시대창극 ‘당신의 의미’(사진)가 오는 6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앙코르 공연을 연다.

지난해 초연된 ‘당신의 의미’는 치매와 황혼이혼, 가족의 붕괴 등 노년의 아픔과 슬픔을 그린 작품으로 5060세대 부모님의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연이다.

주인공 헤자는 운전기사였던 남편 만석을 만나 맨손으로 버스타기를 일궈 남편과 자신들을 건사했지만, 노년에 남은 것은 가족 사이에서 결도는 소외감과 같

등뿐이다. 결국 치매에 걸려 기억도 자신포 잃어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유정영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치매, 황혼이혼 등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상과 현실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며 “시대 창극 ‘당신의 의미’를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나와 당신, 우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장 로비에서는 가족사진을 촬영해 인화까지 해주는 추억의 사진관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람료 1만 원. 문의 061-285-6928. /전문기자 eij6621@

역사의 굽이마다... 옛 전남도청의 여섯개 얼굴

6월 17일까지 ‘가자, 도청으로’ 기획전

‘가자, 도청으로.’

역사의 굽이마다 각기 다른 여섯 개의 얼굴을 가졌던 옛 전남도청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아시아문화원과 공동으로 옛 전남도청 민원실 전채(지하 1층~지상 2층)를 활용, 오는 6월17일까지 5월 특별기획전 ‘가자, 도청으로’를 개최한다. (사진)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에 도청을 점령당한 어둠의 도청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학생들의 의혈이 분수처럼 솟아오른 4·19혁명 ▲1960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제로 끌어놓은 5·16 군사쿠데타 ▲1970년대 유신저항운동 ▲5·18 최후의 항쟁자인 도청의 참혹한 모습 ▲2016년 세계가 놀란 촛불시위 등 역사의 현장과 도청의 모습을 흑백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1960년대 후반 금남로가 8차선으로 확장된 이



후 도청 일원의 공간적 변화 과정, 1993년 이후 도청 이전 관련 자료, 2000년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자료도 전시돼 있다. 관람객들은 1980년 당시 전남도청 현판, 사진기자가 촬영한 5월 항쟁 사진, 계엄군 군복과 군봉, 당시 시민 일기장과 함께 전시장 곳곳에서 38년만에 최초 공개된 5·18영상기록물 편집본을 볼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서화실

봄기운 가득 꽃·나비 그림 전시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을 봄기운 가득한 꽃과 나비 그림들로 새롭게 꾸몄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남나비’로 불릴 만큼 나비 그림의 대가로 알려진 남계우(1811~1890)를 비롯해 송수면(1847~1916)과 이경승(1862~1927)의 나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꽃을 찾는 나비는 아름다움과 사랑, 장수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 예로부터 화가들이 즐겨 그린 소재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화려한 봄꽃을 먹빛만으로 표현한 수묵화를 만날 수 있다. 대상을 예술적 기량을 발휘해 의미를 표현한 다양한 작품에는 문인화가들의 감성이 녹아 있다. 특히 조선 말기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허련(1808~1893)의 모란 그림과 연꽃 그림 병풍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작가의 심상을 느낄 수 있다.

전시는 8월 26일까지 이어지며 무료다. 문의 062-570-7032. /박성진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료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